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차 례

1. 머리말
2. 대북제재의 영향
3. 북한의 대응
4. 2020년 북중 무역과 북한경제 전망

주요 내용

- ▶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임.
 -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25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1% 증가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23억 6,000만 달러로 전년(20억 달러)대비 17.7% 악화됨.
- ▶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수출입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둔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악영향을 미쳤음.
 - UN 제재로 기계류·전자제품처럼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음.
 - 제재로 일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어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 북한도 '제재 외 품목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 수입 지역 다변화, 식품 및 관광 산업 육성, 소비재 수입 확대, 대체 수출 품목 발굴, 비공식 무역 증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등으로 제재에 대응하였음.
- ▶ 2019년 북한경제는 산업 생산 둔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표'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 제재 품목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식품분야 국산화 정책과 관광시설 건설 등에서 성과를 거둠.
- ▶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0년 북중 무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제약이 가장 크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1. 머리말

■ UN 제재의 본격적인 이행에 따라 북한의 상품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북한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임.

- 전문가들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그러나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9. 12. 28~31)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정면 돌파전’을 천명함에 따라 북한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북중 무역 통계 분석을 통해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점검하는 데 있음.

- 대북제재 동향에 따라 2016년을 ‘통상적인 해’, 2017년을 ‘제재 대비의 해’, 2018년을 ‘제재 영향 가시화의 해’로 본다면, 2019년은 ‘제재 적응의 해’로 규정할 수 있음.
- UN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중 무역의 구조와 상품 구성 변화, 북한의 대응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9년 북중 무역 통계를 최초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음.

2. 대북제재의 영향

■ 2016년부터 강화된 UN 제재하에서 북한경제는 ‘무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악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

가. 수출입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

■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되었음(그림 1(좌) 참고).

- 대중 수출은 2억 1,500만 달러로 전년(2억 1,300만 달러)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대체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제재를 상쇄할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음.
- 대중 수입은 25억 7,400만 달러로 전년(22억 1,700만)대비 16.1% 증가했으나, 이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17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9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27억 9,000만 달러로 2016년의 53억 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하여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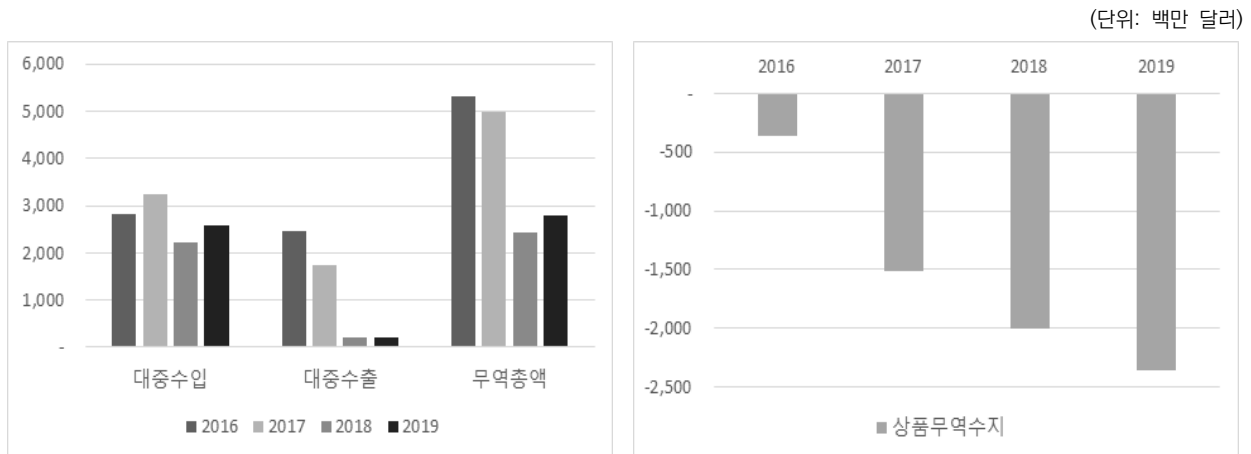
■ 북한의 상품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그림 1(우) 참고).

- 대중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23억 6,000만 달러로 전년(20억 달러)대비 17.7% 증가함.

○ 2018년 북한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GDP의 13.6%를 상회하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

* 2017년 북한 GDP: 173억 6,000만 달러(UN 추정) 기준

그림 1. 북한의 연도별 대중무역(좌)과 상품무역수지(우)



주: 원유 무역액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산업 생산 둔화

■ UN 제재로 기계류·전자제품 등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 생산 전반이 악영향을 받았음.

- UN 제재 결의안 2397호(2017년)는 산업용 기계류, 전자기기, 운송수단, 정유·원유 등 품목의 대북수출을 금지하였음(표 1 참고).
- 산업 생산 관련 품목의 수급 악화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성장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표 2 참고).
- 한국은행은 2018년 전기가스수도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2019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산업생산 또한 둔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표 6 참고).¹⁾

1)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p. 10 북중 무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석(BEC)([표 6] 및 [표 7])을 참고하기 바람.

표 1. 산업별 대중 수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

산업 ¹⁾	2016		2017		2018		2019		제재 동향 ²⁾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2.8	9.9	4.5	13.8	6.3	28.2	6.9	26.8	일부 수출 금지
수산물	0.8	2.7	1.0	3.2	0.7	3.3	0.6	2.2	-
전자	2.8	10.0	3.3	10.3	0.0	0.3	0.0	0.1	수입 전면 금지
섬유류	7.2	25.5	8.4	25.9	6.1	27.5	7.6	29.4	수출 전면 금지
기계	2.4	8.4	2.5	7.6	0.1	0.3	0.0	0.0	수입 전면 금지
광물	1.6	5.7	0.8	2.5	0.4	1.8	0.5	1.9	수출 전면 금지
금속	2.0	7.0	2.1	6.5	0.0	0.1	0.0	0.0	수입 전면 금지
운송기기	2.6	9.0	2.0	6.3	0.0	0.1	0.0	0.0	수입 전면 금지
목재	1.1	3.9	1.5	4.6	1.5	6.6	1.7	6.7	-
플라스틱/고무	2.5	8.9	2.9	8.8	2.8	12.5	3.4	13.1	-
화학	1.4	4.8	1.7	5.1	2.5	11.3	2.6	10.0	-
기타	1.2	4.3	1.7	5.3	1.8	8.1	2.5	9.8	-
총액	28.3		32.5		22.2		25.7		

표 2.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산업	2017	2018
농림어업	-1.3	-1.8
광공업	-8.5	-12.3
-광업	-11.0	-17.8
-제조업	-6.9	-9.1
(경공업)	0.1	-2.6
(중화학공업)	-10.4	-12.4
전기·가스·수도업	-2.9	5.7
건설업	-4.4	-4.4
서비스업	0.5	0.9
-정부	0.8	0.8
-기타	-0.3	1.2
국내총생산	-3.5	-4.1

주: 1) 농업: 01~02, 04~13, 15, 1601~1602, 17~24, 수산업: 03, 1603~1605, 전자: HS 85, 섬유류: 14, 41~43, 50~67, 기계: 84, 광물: 25~27, 68, 금속: 72~83, 운송기기: 86~89, 목재: 44~49, 94, 플라스틱/고무: 39~40, 화학: 28~38, 기타: 69~71, 90~93, 95~99.

2) 북한의 수입과 수출임. 예컨대 '수출 금지'의 경우 '북한의 대외 수출 금지'를 의미함.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 또한 UN 제재로 '광물, 의류, 수산물' 등 북한 주요 생산 품목의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2차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제재로 인해 2018년부터 주요 품목(광물, 섬유류, 수산물 등)의 수출액과 비중이 급감하였음(표 3 참고).
- 특정 품목의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광업과 제조업 등 직접적으로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운송, 저장)까지 동반 축소되면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제재로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석탄 원부자재 수입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수용 석탄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²⁾

2) 이에 따라 석탄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강조함. "온 나라가 떨쳐나 탄광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며 석탄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 전문 발췌. 『노동신문』(2019. 1. 18), 「탄광을 힘있게 지원」; 『노동신문』(2019. 3. 18), 「탄광들에 더 많은 고무 제품을」; 『노동신문』(2019. 3. 20), 「석탄 전선에 더 많은 동발 나무를」; 『노동신문』(2019. 4. 9), 「탄광지원열의 고조」; 『노동신문』(2019. 4. 30), 「석탄 전선을 적극 지원」; 『노동신문』(2019. 6. 10), 「석탄 전선을 함께 지켜냈다」 등.

표 3. 북한의 주요 품목(제재 대상)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산업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북한 주력 수출품	광물	14.6	59.1	6.5	37.7	0.5	22.2	0.3	1.3
	섬유류	5.8	23.5	5.9	34.4	0.3	15.0	0.4	1.7
	수산물	1.9	7.8	1.7	9.5	-	-	-	-
	수출 총액	24.7	100	17.3	100	2.1	100	2.2	1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기술발전 둔화: 중·고위 기술 품목의 수입 감소

■ 제재로 일부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기술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북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 수출 대상인 산업용 기계류, 전자기기 등은 해당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품목*임.³⁾

* 태블릿, 휴대전화, 광학장비, 모니터, 컴퓨터 등을 수입하여 무인화·자동화를 달성하고 산업 생산성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대북제재로 관련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간기술, 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은 감소하고, ‘단순가공, 낮은 기술’ 품목의 수입은 증가하였음(표 4 참고).

표 4. 대중 수입 기술수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원자재	2.0 (7.1)	2.2 (6.7)	2.2 (9.8)	2.7 (10.5)
단순가공	5.4 (19.1)	5.9 (18.1)	6.6 (29.9)	7.2 (28.2)
낮은기술	8.9 (31.5)	10.6 (32.7)	7.0 (31.7)	8.9 (34.5)
중간기술	8.7 (30.7)	8.7 (26.9)	4.6 (20.6)	5.1 (19.8)
고위기술	2.9 (10.3)	3.2 (9.9)	0.5 (2.1)	0.6 (2.3)
기타	0.6 (2.0)	0.7 (2.1)	0.5 (2.3)	0.4 (1.5)
수입총액	28.3	32.5	22.2	25.7

주: 기술수준은 HS-SITC 변환 코드를 활용.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대중 수출 기술수준

(단위: 억 달러, 총액 대비 비중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원자재	15.1 (61.2)	6.6 (38.1)	0.5 (22.5)	0.2 (10.4)
단순가공	2.2 (8.8)	0.6 (3.5)	0.2 (9.7)	0.2 (7.6)
낮은기술	5.8 (23.7)	6.1 (35.0)	0.4 (19.6)	0.6 (25.7)
중간기술	0.5 (2.2)	0.7 (3.8)	0.6 (30.8)	0.9 (38.9)
고위기술	0.2 (0.9)	0.4 (2.0)	0.1 (5.1)	0.2 (7.5)
기타	0.8 (3.3)	1.2 (6.7)	0.1 (5.4)	0.1 (5.2)
수출총액	24.7	17.3	2.1	2.2

3)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지식 경제’를 천명하고 과학기술 발전, 첨단산업 육성,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등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였음. 특히 생산시설의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인터넷 구축 등 자동화·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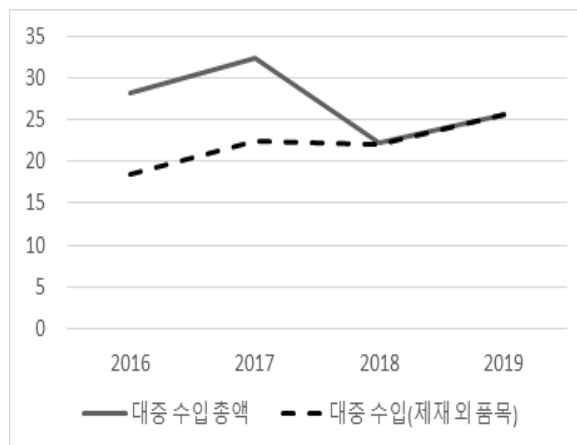
3. 북한의 대응

가. 제재 외 품목의 수입 증가

■ 북한당국은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당초 제재가 본격화되었던 2018년 초반 하더라도 ‘당국의 외화 부족, 제재로 인한 주민의 심리적 충격’ 등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8~19년 동안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2 참고).
- 소비재(주민 소비품 증가)와 당국의 경제정책(식품 국산화, 관광시설 개발) 관련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구매력 증가’ 및 ‘공공 부문의 외화 지출 확대’가 모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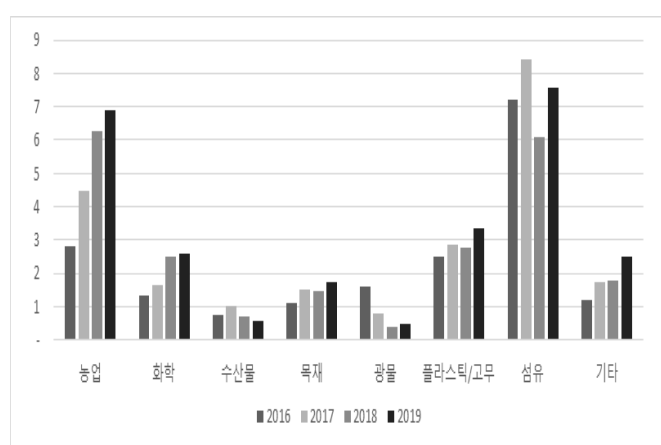
그림 2. 제재 외 품목의 대중 수입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대중 수입의 산업별 추이(2016~19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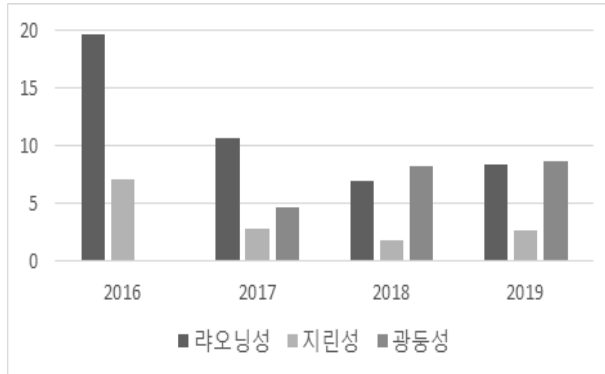


나. 수입 지역 다변화

■ 2017년까지 북중 무역의 대부분이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제재 강화 이후 광둥성, 랴오닝성, 지린성으로 수입 지역이 다변화되었음.

- 제재 강화 이후 랴오닝성, 지린성과 함께 광둥성이 주요 교역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함.
- 2019년 북한의 對광둥성 수입은 8억 6,0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입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랴오닝성(8억 3,000만 달러)을 추월한 것임(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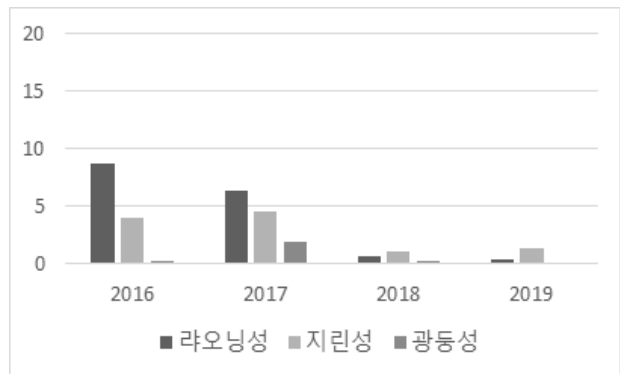
그림 4. 대중 수입의 주거래 성(省)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대중 수출의 주거래 성(省)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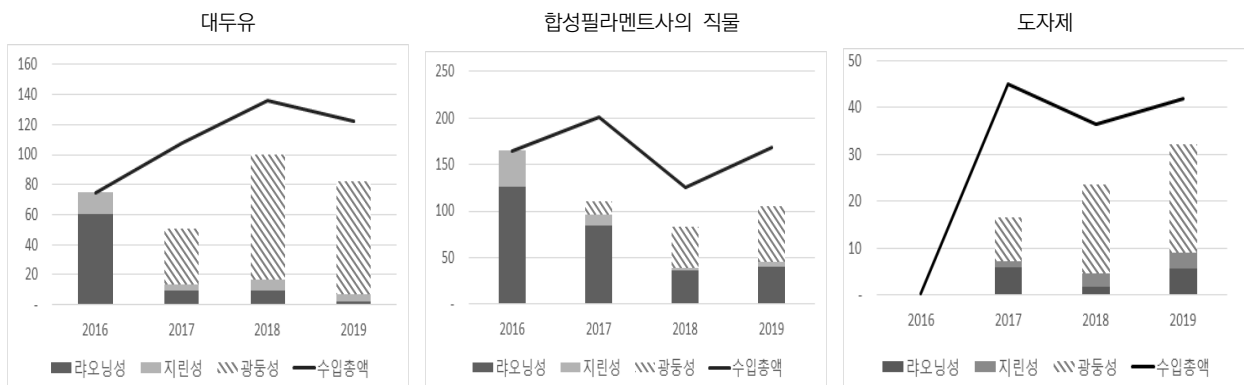


■ 광둥성과 북한 전체 수입의 구성이 유사한데, 광둥성과의 무역 확대는 대북제재에 의해 랴오닝성, 지린성과의 무역 중단에 대비하여 수입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對광둥성 수입 확대는 북중 무역이 ‘육로’ 중심에서 ‘해상’으로 변한 것을 의미하므로 제재에 대비하여 감시가 집중되는 접경지역을 우회하는 효과가 있으며, 만약 랴오닝성, 지린성과의 무역이 중단되더라도 광둥성에서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제재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만약 비공식 무역(밀무역) 증가, 대북 투자 상환 등의 이유로 對광둥성 교역이 증가하였다면, 수입품이 랴오닝성이나 지린성과 차별화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을 것임.
- 광둥성과의 협력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북한 언론은 2017년부터 광둥성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對광둥성과 對중국 주요 수입품이 ‘대두유, 합성필라멘트사, 가구, 타일’ 등으로 유사함(부록 표 1. 3 참고).
- 광둥성이 북한의 주요 수입 대상지역으로 부상한 데는 대두유와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수입 지역이 랴오닝성·지린성에서 광둥성으로 대체된 영향이 큼(그림 6 참고).
- 2017년부터 대중 수입이 급증한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도 광둥성에서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그림 6. 주요 3개 성으로부터의 대두유·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도자제 품목 수입 금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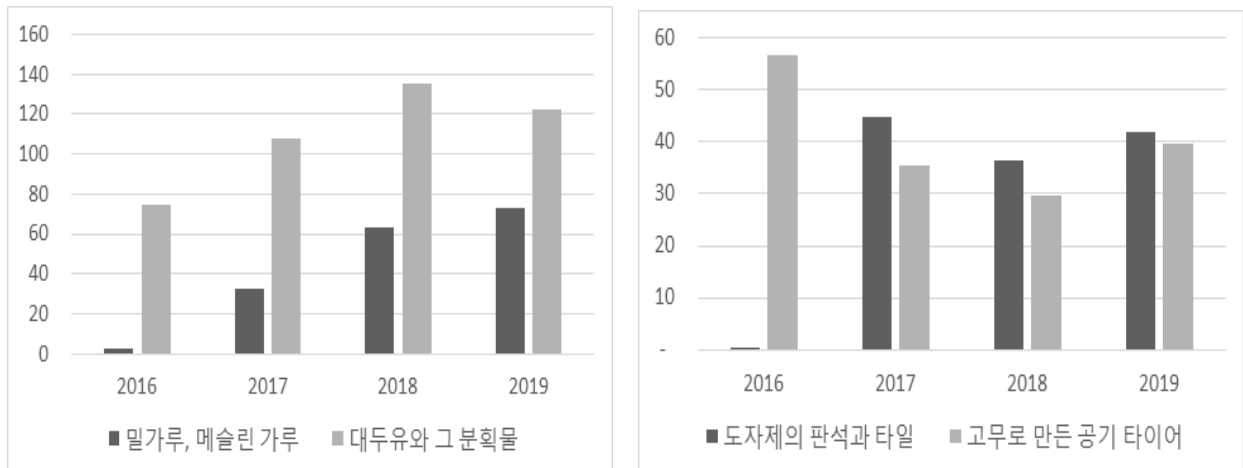
다. 식품 및 관광 산업 육성

■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표’ 산업정책인 ‘수입 대체(국산화: 식품산업)’와 ‘관광산업(건설·물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품목의 수입이 확대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수입 대체(국산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식품 관련 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표 9 참고).
- 식품(과자와 빵) 생산에 필요한 대두유와 밀가루의 대중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7 참고).
- 건물 내장재(도자제 및 타일)와 고무 타이어 등의 수입도 2017~19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재에 대비한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육성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 개건(改建)과 주요 도시의 고층 건물(아파트)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건물 내장재로 사용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제8순위)’ 수입은 약 4,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함.
- 2019년 고무 타이어 수입이 직전 2개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내부적으로 여객과 화물 등의 운수산업이 축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고무 타이어의 수입은 약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1% 증가하였음(그림 7 참고).

그림 7. 북한의 식품산업과 관광시설 관련 품목의 대중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소비재 수입 확대

■ 제재하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제재가 악영향을 미칠 경우 주민들의 구매력이 줄고 수입 또한 감소하나, 북한의 경우 소비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구매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 6 참고).
- 소비재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 둔화에 따른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제재 본격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금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6. 대중 수입의 사용 목적별 분류(BEC)

구분	2016	2017	2018	2019
중간재	13.6 (48.2)	16.2 (49.9)	12.4 (55.9)	14.5 (56.4)
소비재	7.8 (27.5)	9.3 (28.7)	8.5 (38.3)	9.8 (38.5)
자본재	5.5 (19.4)	4.7 (14.5)	0.3 (1.2)	0.2 (0.9)
수입총액	28.3	32.5	22.2	25.7

표 7. 대중 수출의 사용 목적별 분류(BEC)

(단위: 억 달러, 총액 대비 비중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중간재	16.2 (65.7)	7.8 (44.8)	1.3 (63.7)	1.4 (62.9)
소비재	8.2 (33.3)	7.3 (41.9)	0.5 (23.0)	0.5 (24.1)
자본재	0.2 (0.9)	0.3 (2.0)	0.1 (5.0)	0.2 (7.4)
수출총액	24.7	17.3	2.1	2.2

주: 1) 대중 수입을 사용 목적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HS(2012)-BEC4' 코드 변환표를 활용하였음.

2) HS 코드를 BEC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되지 않는 HS 코드가 존재하여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의 합이 총합보다 적을 수 있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8. 중간재의 산업별 분류(금액,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43.6	3.2	126.9	7.8	164.5	13.2	184.9	12.7
화학	103.1	7.6	125.3	7.7	181.2	14.6	170.3	11.7
전자	66.1	4.8	81.9	5.0	2.3	0.2	0.2	0.0
기타	88.6	6.5	84.9	5.2	94.4	7.6	142.1	9.8
섬유	502.8	36.9	604.1	37.2	430.2	34.6	532.3	36.7
기계	24.7	1.8	25.3	1.6	0.5	0.0	0.1	0.0
수산	0.0	0.0	15.9	1.0	26.0	2.1	12.0	0.8
광업	46.8	3.4	31.4	1.9	30.6	2.5	36.3	2.5
플라스틱/고무	221.7	16.2	232.9	14.4	227.6	18.3	270.4	18.6
금속	175.3	12.8	186.6	11.5	1.5	0.1	0.4	0.0
목재	76.6	5.6	85.6	5.3	82.6	6.7	101.5	7.0
운송수단	15.0	1.1	21.0	1.3	0.5	0.0	0.0	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9. 소비재의 산업별 분류(금액,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237.5	30.5	309.5	33.2	437.9	51.5	481.8	48.7
화학	31.9	4.1	37.1	4.0	66.4	7.8	85.9	8.7
전자	72.2	9.3	95.4	10.2	3.1	0.4	0.1	0.0
기타	25.1	3.2	37.2	4.0	43.9	5.2	58.7	5.9
섬유	220.1	28.3	229.1	24.5	170.8	20.1	215.1	21.8
기계	23.6	3.0	44.5	4.8	1.1	0.1	0.1	0.0
수산	75.1	9.6	69.9	7.5	45.8	5.4	43.6	4.4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플라스틱/고무	29.5	3.8	47.2	5.1	41.0	4.8	55.9	5.7
금속	10.8	1.4	14.6	1.6	0.3	0.0	0.0	0.0
목재	20.3	2.6	34.6	3.7	40.5	4.8	47.0	4.8
운송수단	32.5	4.2	14.3	1.5	0.2	0.0	0.1	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대체 수출품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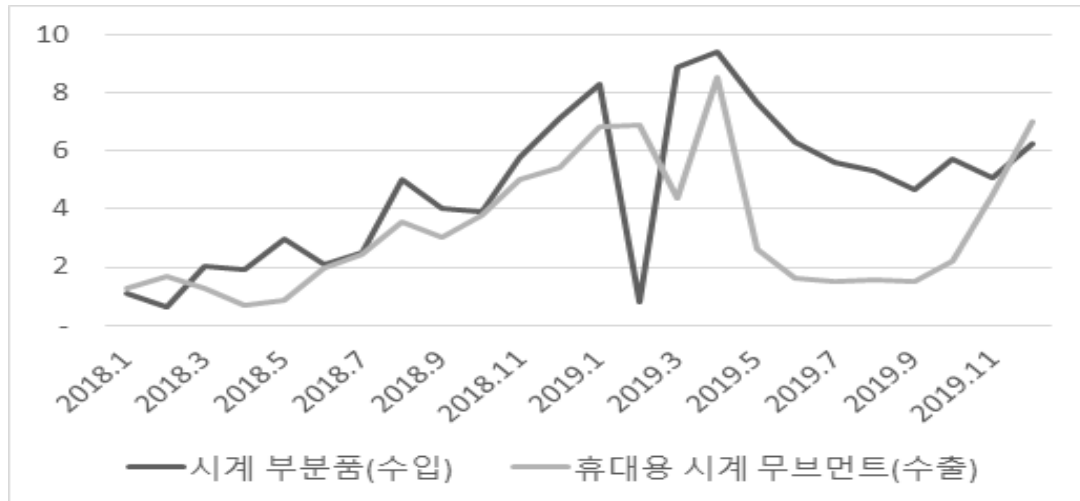
■ 비제재 대상인 광물이나 신규 임가공 품목과 같은 대체 수출품을 발굴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임.

- 2018년부터 신규 임가공 품목으로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가 북한의 대중수출 제1순위 품목으로 부상하였음(그림 8, 부록 표 2 참고).
 - 임가공 수출을 위한 시계 부품의 수입은 2018년 전년대비 1,677% 급증한 후, 2019년에도 전년대비 88.7% 증가함.
 - 다만 그 규모가 작아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임.
- 광물 분야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무연탄·철광석 대신 합금철·텅스텐광·몰리브덴광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각각의 수출은 전년대비 9.7%, -33.3%, 31.2% 증가하였음.⁴⁾
- 이 밖에도 기존의 임가공 무역 품목인 가발·가수염·눈썹, 신발과 함께 전사용 기구와 모형, 운동 용품 등 신규 임가공 품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출은 전년대비 38.8%, 127.4%, 64.5%, 209.1% 증가하였음.
- 이들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악영향을 상쇄하지 못했는데,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000만 달러로 2016년 24억 7,000만 달러 대비 91.1% 감소한 것임(그림 1 참고).

4) 2018년 텅스텐의 수출은 이미 전년대비 370% 증가한 바 있으며, 2019년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수출 제5순위 품목임.

그림 8. 시계 부분품의 수입과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바. 비공식 무역의 증가

■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정제유와 같은 주요 생필품의 밀수입과 함께 북한산 광물 등의 밀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UN 대북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UN 제재 대상 품목을 여전히 수출입하고 있음.⁵⁾
-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동안 이미 UNSCR 2397호에서 제시한 기준인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양의 정제유가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됨.
- UN 제재위원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 물량이 UN 제재 쿼터를 초과하였기 때문에⁶⁾ 대북 정제유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공한 제재 위반 물량의 추정치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위성사진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정제유 수출금지 요청을 UN 안보리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임.⁷⁾

■ 석유류 임가공 수출이 비공식적으로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석유 수출이 불가능한 2019년의 석유류 수입이 7억 6,000만 달러로, 석유 수출이 가능하였던 2016년의 7억 2,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5) UN security council(2019), pp. 7-16.

6) 미국은 3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북 불법 유입 정제유 추정치와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한 대북 정제유 수출액을 더할 경우 1/4분기에 이미 UN 제재 쿼터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함. 2019년 4월까지 UN 안보리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5월 중국은 5,730톤, 러시아는 2만 2,184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식적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는 UN 제재 쿼터량(50만 배럴)의 40% 수준임.

7) UN security council(2019), p. 50.

- 섬유류 품목의 대중 수입은 2016년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2019년에 수입한 것이 전부 내수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북한의 섬유류 수출이 2016년 7억 2,000만 달러에서 2019년 4,000만 달러로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섬유류 수입은 2016년보다 증가하였음.
- UN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산 의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산업 원부자재로 추정되는 품목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섬유 임가공의 비공식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0. 북한 섬유류 대중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섬유류	대중 수입	722.9	840.6	609.7	755.4
	대중 수출	579.6	594.9	31.9	44.0
수입 대비 수출 비중		80.2%	70.8%	5.2%	5.8%

주: 섬유류는 HS 코드 2자리 기준 14, 41~43, 50~67 품목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 시진핑 주석의 방북(2019. 6) 등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의 인도적 지원(쌀, 의약품, 비료)이 이루어졌음.

- 무역통계상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지원(차관) 품목으로는 쌀, 의약품, 비료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들 품목을 일반 교역 대상 품목으로 보지 않고 대북 지원 품목으로 추정하는 것은 관련 품목의 수입이 연중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 쌀은 시진핑 주석 방북 후인 2019년 7~9월 집중 지원되었으며, 의약품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음.
- 또한 이들 품목의 무역 형태가 '원조'가 아닌 '접경무역(border trade)'으로 분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4. 2020년 북중 무역과 북한경제 전망

가. 2019년 평가

■ 2019년 북한경제는 산업 생산의 둔화 징후가 관찰되었으나,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제재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였고, '김정은 위원장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한편에서는 전자제품, 생산설비, 운송수단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 생산 둔화 등을 경험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 국면에서도 식품 국산화, 관광시설 개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 언제까지 수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외화 보유고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그러나 대중 수입 증가만으로 북한경제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만약 제재가 북한경제에 '산업 생산 둔화'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산업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체수출품 발굴이 일정한 성과를 냈을 것임.
-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식품 국산화'도 생산량이 충분하고 품질이 우수하였다면 어느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주요 수출품이 임가공 품목(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가발, 전사용 기구, 신발, 운동 용품)과 광물(합금철, 텅스텐, 몰리브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품 국산화도 내수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2018~19년 수입의 증가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경감되었으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 2018~19년 2년 동안 수출에 비해 수입이 지나치게 큰 기형적인 구조가 구축·지속되었는데, 앞으로도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특히 UNSCR 2397(2017. 12)호에 따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2019년 말 북한으로 송환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의 대북 관광이 중단되면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020년에는 수입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나. 2020년 전망

■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중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0년 북중 무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접경무역이 중단되어 2020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염병 확산이 조기에 진정된다면 하반기에 상반기 감소분을 만회하면서 북중 무역 총액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수출의 경우 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아 제재의 악영향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임.
- 수입의 경우 상품수지 적자의 누적과 해외 노동자 귀환에 따른 외화 소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관광 중단으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제약이 가장 크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제한적임.

- 북한산 주요 품목(무연탄, 의류 임가공,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도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자제품, 생산설비, 운송수단의 수입이 막히면서 국영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재가 북한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과 제조업 고도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문제가 조기에 해결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전망이다.

- 일반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을 봉쇄하고 인력 왕래를 차단하면 경제가 악영향을 받게 되나, 북한의 경우 체제안정을 위해 주민의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 봉쇄의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관건은 국경 폐쇄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와 무역 감소인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외화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화물선 왕래는 차단하지 않아 무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이전에도 북한은 대규모 전염병이 유행하였을 때 국경을 차단하였으나, 무역에 쓰이는 화물선의 이동은 차단하지 않았음.
 - 사스(2004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3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아프리카돼지열병(2019년) 등이 발병했을 때도 화물선 이동은 차단하지 않았음.
 - 사스 발생으로 '항공 노선 차단, 신의주 세관 일시 폐쇄,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화물선 이동은 차단하지 않음.
 - 그 결과 2003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3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4년에도 19.5% 증가한 28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국경차단이 무역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다. 시사점

■ UN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당초 중국의 제재 공조로 라오닝성과 지린성의 검역이 심해질 경우 對중국 수입이 감소하면서 북한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북한은 광둥성과의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를 우회하였음.
- 북한의 對광둥성 수입 확대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남북 교역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되,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경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재를 저축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 교역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 교역 재개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① 대북 bulk cash 지급 ② 남북 기업의 합작합영 ③ 남한 운송수단에 대한 북한 진입 금지 ④ 운송수단에 대한 보험 지급'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대북 bulk cash 지급은 북중 무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2019년 중국은 對북 수출대금으로 2억 2,000만 달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관련하여 bulk cash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음.
- 합작·합영은 '자금 출자'를 전제로 하는데, 상업적 목적의 남북 교역은 이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음.
- 남한 운송수단의 북한 진입은 제재에 저촉되는 만큼 북한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운송수단에 대한 보험 지급은 현실적으로 상업적인 보험회사 활용이 어려운 만큼 경험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호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북한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 당국도 수입을 장려하는 만큼 남북 교역 품목을 '농산물, 섬유제품' 중심에서 '건축자재, 의약품, 과일'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2000년대 남한의 반입 품목은 농산물, 對북 반출 품목은 섬유제품이 주를 이루었고, 북한은 남북 교역에서 얻은 흑자를 북중 무역 적자를 메우는 데 활용하였음.
- 당시에는 북한의 구매력이 낮아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수입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건축자재와 의약품(아스피린, 비타민, 결핵약) 등을 신규 대북 반출 품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은 한반도 문제로 확대된 만큼, 여건이 조성될 경우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⁸⁾

-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발생한 전염병이 상대측으로 전파되면서 한반도 문제로 확대된 사례가 있음.
- 1998~2000년 남한에서 근절되었다고 알려진 말라리아 환자가 휴전선 인근 국군장병과 주민을 중심으로 약 4,000여 명 발생⁹⁾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휴전선 인근에서 공동 방역사업을 실시
- 2018년 남한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이 북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한에 예방 물품 전달
- 2019년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남한으로 확산
- 남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확진자 관리 매뉴얼 등을 북한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제재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원 마련 방법과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재로 북한의 외화가 고갈되면서 북한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난을 이유로 북한이 비핵

8) 최장호, 이정균(2020),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전망 2020: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p.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화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북한은 대중 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며, 제재 정면 돌파 의지도 밝히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북한의 외환 보유고와 고갈 속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북한이 언제까지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북한의 수입 자원 마련에 관한 연구는 제재 강화 여부는 물론, 남북 경협 재개 시 북한개발 자원 마련방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책연구 및 유관기관에 관련 연구 확대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부록

부록 표 1.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 현황(상위 10개)

(단위: 백만 달러, 총액 대비 비중 %)

순위	품목명	HS 코드	2018 (비중)	2019 (비중)	증감률
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	125.9(5.7)	168.9(6.6)	34.2%
2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	135.6(6.1)	122.0(4.7)	-10.0%
3	쌀	1006	24.6(1.1)	77.5(3.0)	214.6%
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	39.1(1.8)	73.8(2.9)	88.6%
5	밀가루, 메슬린 가루	1101	63.0(2.8)	73.2(2.8)	16.1%
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	54.2(2.4)	54.8(2.1)	1.1%
7	의약품	3004	30.3(1.4)	44.3(1.7)	46.4%
8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	6907	36.4(1.6)	42.0(1.6)	15.4%
9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	34.8(1.6)	39.9(1.5)	14.6%
10	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	4011	29.7(1.3)	39.5(1.5)	33.1%
북한의 대중 수입 총액			2,216.9	2,573.8	

자료: 중국해관통계(2020.2.6 조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2.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현황(상위 10개)

(단위: 백만 달러, 총액 대비 비중 %)

순위	품목명	HS 코드	2018 (비중)	2019 (비중)	증감률
1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9108	31.1 (14.6)	49.2 (22.9)	58.1%
2	가발, 가수염, 눈썹, 속눈썹 등 이와 유사한 것	6704	22.4 (10.5)	31.1 (14.4)	38.8%
3	합금철	7202	28.3 (13.3)	31.1 (14.4)	9.7%
4	전사용 기구와 모형 (과학기술의학 분야,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	9023	9.9 (4.7)	16.4 (7.6)	64.5%
5	텅스텐광과 그 정광	2611	18.5 (8.7)	12.3 (5.7)	-33.3%
6	전기 에너지	2716	11.4 (5.3)	11.4 (5.3)	0.3%
7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	6.8 (3.2)	9.0 (4.2)	31.2%
8	개인이 휴대한 품목	9804	18.6 (8.7)	7.0 (3.2)	-62.5%
9	신발류 부분품, 안창과 힐쿠션 등	6406	2.5 (1.2)	5.7 (2.6)	127.4%
10	운동 용품과 욕의 게임 용품, 수영장 용품	9506	1.8 (0.8)	5.6 (2.6)	209.1%
북한의 대중 수출 총액			213.2	215.2	-

자료: 중국해관통계(2020.2.6. 조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3. 2019년 북한의 對光동성 수입 품목 현황(상위 5개)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HS 코드	2018	2019	증감률
1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	84.0	75.0	-11%
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	43.4	59.7	38%
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	21.7	25.3	16%
4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	6907	19.0	23.1	22%
5	사과	0808	46.1	20.5	-55%